

담배에 대해서는, 사람이라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어학교를 다닐때나 회화 시간에서도 담배에 관한 테마는 빠져서는 안될 화제이곤 합니다.

저는 현재, 애연가로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와는 좀 떨어져 꽤나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토론의 장소에서는 항상 찬성과 반대파가 나누어져 의견을 내놓습니다. 어느쪽도 지지않기 위해 강렬한 발표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담배는 건강에 안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끊기는 제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대파 중에서는 잔혹할 정도의 말들을 써서 애연가들을 밀어부칩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안좋은 눈으로 보여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끊으려고 생각이 있어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끊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몸에 베어버린 담배의 위력을 알리가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향해 일방적으로 공격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자유, 말하면서도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나 생각과 다르면 상대를 공격하거나 안좋은 소리를 하고 합니다. 담배라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식품으로 정확히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저도, 사람에게 간섭 받거나 담배에 대해 이런저런소리를 듣고싶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아이들이나 임산부들의 흡연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규제를 만들어 공격하는 것보다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인이나 일본인과 같은 형태로 한국인 여성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부모님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시대가 꼭 왔으면 합니다.

흡연자로서 흡연자에게 딱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흡연가들이 세상에서 무시 당하기 전에 정확하게 규칙이나 매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더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시대가 올것이라 생각합니다.

「흡연자여! 힘내십시오」